

# 송원대, '착한 학식'으로 든든한 캠퍼스 만든다

## 학생 2천원·교직원 3천원 점심 지원 천원의 아침밥·특식 프로그램 확대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가 학생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 교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복지를 대폭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송원대에 따르면 송원대는 오는 3월부터 교내 학생식당(송담) 점심식사를 학생 2000원, 교직원 3000원에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학생들의 식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격적인 점심제공은 학교법인 송원대 제2대 고경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다.

송담은 2024년 고 이사장 취임 이후 외면받던 공간에서 학생, 교직원의 발길을 이어지는 식당으로 변모했다. 주변 시민이 학생식당을 찾을 정도로 입소문 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생이 용출이 낮은 학생식당 개선사업에 착수, 1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학생 3000원, 교직원 4000원에 제공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각각 1000원씩 낮춰 점심을 제공하기로 했다.

송담에서는 영양 균형과 신선도를 고려한 다양한 식단을 매일 제공하고 있다. 특별 메뉴 구성으로 토스트와 달걀후라이 무제한 제공, '킹크랩 데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쌀국수 데이' 등 다양

한 특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송원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도 참여해 오는 3월부터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내 GS편의점과 협약을 통해 다양한 메뉴를 구성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경주 이사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먼저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겠다"며 "천원의 아침밥과 2000원 학생식당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의 든든한 식사를 책임지고 학교 집중력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송원대 고경주 이사장은 송원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고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장학 및 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법무부 산하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 청소년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송원 초, 중, 고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총 32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송원대학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6,000만원/2025년)을 매년 지원하는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대 고경주(왼쪽에서 세번째) 이사장이 학생, 교직원 등과 학생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송원대 제공>



친구야 졸업 축하해...동신대 학위수여식 23일 오전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동강대 'RISE'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

전남대와 컨소시엄...드론·공예·건강교실 등 7개 프로그램 진행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사회 트렌드와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채로운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프로그램을 펼쳤다. <사진> 특히 동강대는 오는 4월23일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강대 RISE 사업단은 지난 1-2월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프로그램 7개 과정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INNO UP 프로젝트 단위 과제(4-1)인 '대학-지역사회 자원공유 커뮤니티 시티'로 전남대와 컨소시엄으로 운영됐다.

동강대는 사회 트렌드와 지역민의 니즈, 연령층을 고려해 3D Pen, 3D 프린팅, 드론을 이용한 항공 사진 촬영, 박물관 문화 프로그램, 생활 속의 의료 및 건강 용어, 지역주민 생활 예술(DIY 목공예, 가죽 공예, 웰빙 건강 교실), 자동차의 구조 등 총 7개 과정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3D Pen과 3D 프린팅은 과정은 교수연구동 1층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실에서 열렸다.

또 인조잔디 구장과 드론축구장에서는 드론 실습과 촬영 기술 교육이 펼쳐졌고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공관 자율주행 실습실에서 이뤄졌다.

박물관 문화 프로그램은 동강대 학생회관 박물관에서 지역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2차례 열렸다. 어린이들은 박제, 표본, 화석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진화 역사를 직접 관찰하고 견학을 마친



뒤 동물 만들기 체험 시간도 가졌다. 지역주민 생활 예술 프로그램은 도마와 가죽 공예 강의가 마련됐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웰빙 건강 교실도 열렸다.

이밖에 생활 속의 의료 및 건강 용어 과정은 병원에서 쓰이는 다양한 외래어 사례를 소개하며 병원에서 원활한 소통과 진료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이번 단위과제 책임을 맡은 함순아 교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기대 이상이었다. 향후 생애 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풍성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 청소년 신체활동 증가 비만·흡연율·학교폭력 줄어

전남 지역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증가하고 비만·흡연율은 감소하면서 건강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매년 공동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전남은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하고 비만·흡연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체활동 실천율 상승이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3년 14.5%에서 2024년 19.4%로 크게 상승한 뒤, 2025년에도 17.4%를 유지하며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3년 37.3%에서 2025년 42.2%로 꾸준히 증가해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청소년 비만도가 2024년 25.4%에서 2025년 23.3%로 감소한 데 이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일반담배) 역시 2023년 5.7%에서 2025년 3.4%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전남교육청은 2025년 전남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119건) 감소한 것도 학생들의 이같은 신체활동과 건강생활 실천 확산이 학교 분위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꿈은 삶의 방향' 전남 초등생 자기설계 힘 키운다

'꿈 실현 인생학교' 3년차...상표 등록으로 브랜드화 체계적 운영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 운영하는 '꿈 실현 인생학교'가 초등 5·6학년 대상 '꿈 세움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3년 차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0·11일(목포대), 11·12일(순천대) 양일간 열린 학교에는 도내 초등학생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올해 1년간 도전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꿈 실현 인생학교는 꿈을 단순한 '희망 직업'이 아닌 자기주도적 경험을 통해 미래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전남형 꿈실현 교육 모델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상표등록까지 마쳐 브랜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방향을 설정할 힘을 키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꿈 세움 과정'은 ▲나 발견 ▲꿈 발견 ▲꿈 디자인 ▲꿈 발표·공유 등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 대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자신의 관심과 강점을 탐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1년간 실천할 구체적인 도전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소식에 참석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초등학생 시절의 꿈을 들려주며 "꿈은 꼭 직업일 필요

도, 한 가지일 필요도 없다"라라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며 삶의 방향을 잡는 힘"이라고 격려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과거 꿈 실현 인생학교 멘티였던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 '선배 멘토'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선배 멘토들은 책임 역할을 맡은 '꿈길멘토'와 함께 후배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촉진자 임무를 수행했다. 이는 멘티가 멘토로 성장해 다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꿈 실현 인생학교가 지향하는 성장 모델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수료식에서는 정성호 기부자(용호주식회사 대표)가 꿈 동반자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꿈 실현금' 증서를 수여했다.

참여 학생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꿈 세움 과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전에는 꿈이 그냥 갖고 싶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성에 꿈 실현 인생학교장은 "꿈 실현 인생학교는 정답을 알려주는 학교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방향을 세우는 힘을 기르는 학교"라며 "아이들이 '뭘 해야 하나요?' 대신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한 순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6M7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b>금융감독원 콜센터</b>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b>금융감독원 홈페이지</b>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b>각 보험회사 대표번호</b></p> <p><b>각 보험회사 홈페이지</b>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